

올해는 '갑신년'이라 해서 원숭이가 주인공인 해입니다.....여러분들도 바나나를 먹으며 나무에 오르는 원숭이를 본 적이 있지요.....원숭이는 일반적으로 재주가 많고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동물원의 재간둥이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친구.....이 친구를 비롯해서 열두 달을 상징하는 띠 신에 대한 그림책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여기에 설날을 맞아 읽기 좋은 전통이야기책부터 전통놀이책까지 설날 종합 책 선물세트까지 함께 준비했으니 골라 읽어보세요.

세계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모험하고 여행을 즐기는 친구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외로움도 느낀답니다. 원숭이의 개성을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원숭이는 타고난 영리함으로 남들과 어울리는 방법들을 찾아나간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내는 미덕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책은 원숭이가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합니다. 열두 띠 신에 대한 설명을 참고삼아 나에게겐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 풍성한 우리 이야기, 우리 먹거리 >



< 원숭이해, 원숭이처럼 말갯 재주부러요 >

《열두 띠 이야기》



정하섭 엮음·이춘길 그림 | 보림 | 40쪽 | 값 7,500원

“왜 나는 원숭이 띠에 아빠는 호랑이 띠지?”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띠의 유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느님은 편하게 잠을 자고 싶어서 열두 신을 땅에 내려 보냅니다. 이들에게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라고 부탁한 것이죠. 열두 동물들은 모두 개성이 강합니다. 쥐는 부지런히 저축하는 알뜰한 신, 양은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신, 원숭이는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쳐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느님이 마음놓고 잠이 들려는 순간 열두 신은 서로 대장이 된다고 싸웁니다. 결국 하느님은 열두 신에게 돌아가며 대장을 맡으라고 하지요. 처음 세상에 나온 순서대로 대장이 된 열두 신. 이들 덕분에 사람들은 각자 다른 띠를 갖게 되었답니다.

《열두 띠》



신명희 글·한태희 그림 | 초방책방 | 28쪽 | 값 9,000원

이 책은 각 열두 띠 신의 특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성격을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지요. 원숭이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원숭이는 특별한 자기

《때글때글 떡먹기》



서정오 글·이역배 그림 | 보리 | 122쪽 | 값 6,500원

토끼, 호랑이, 여우, 두꺼비,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래동화처럼 정겨운 이야기들 속에는 피쟁이 토끼, 어리숙한 호랑이, 미역국을 끓이는 메뚜기 등 사람과 닮은 동물들이 있지요. 사람 살이와 다를 것 없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선사하는 책입니다. 동물들의 독특한 생김새를 유래를 통해 설명한 부분도 재미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옛 이야기 읽으며 알찬 설날 보내세요.



《신토불이 우리음식》



우리누리 지음 | 중앙M&B | 130쪽 | 값 6,500원

“엄마는 맨날 김치만 먹으라고 해!”라며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권하기 좋은 책입니다. 김치, 불고기, 반대떡, 한과와 음료, 술, 떡, 국, 밥까지 우리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 먹어온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이 왜 몸에 좋은지, 그 음식들을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새해 밥상을 보면서 반찬투정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손큰 할머니의 만두만들기》



채인선 글·이역배 그림 | 재미마주 | 50쪽 | 값 6,800원

무엇이든지 크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만두를 만들려는 할머니는 올해도 함치박 가득 만두소를 준비했지요. 동물들은 할머니네 집에서 일 년 내내 배불리 먹어도 될 만큼 산더미 같은 만두 재료를 앞에 놓고 만두를 빚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만두를 빚으러 온 동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군요. 며칠밤을 새우며 빚어도

재료가 쉽게 줄어들지 않아서

입니다. 이때 할머니가 재미

있는 제안을 합니다. 남은

만두소를 다 넣어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흠어져 있던 동물들은 힘을 합쳐 큰 만두를 완성합니다. 동물들이 모여앉아 만두를 빚는 모습에서 평절 때 모여앉아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한 살 더 먹는 경험을 해보세요. 손이 큰 할머니의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웃놀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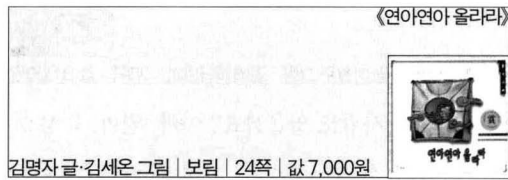


이은화 글·한유민 그림 | 한림출판사 | 34쪽 | 값 7,000원

꿀꿀이 돼지는 새해 첫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모님께 세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동네 밖에서 만난 친구들과(말, 소, 양, 개)과 재미있는 달리기 시합을 하지요. 상품은 사과입니다. 빨리 달린 사람에게 사과 다섯 개, 그다음 사람에게 네 개, 그다음 사람에게 세 개를 주는 식의 경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돼지는 생각처럼 잘 달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속웃까지 보이며 넘어지는 바람에 망신까지 당하며 꼴찌를 하



게 되지요. 결국 말, 소, 양, 개, 돼지 순으로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꼴찌를 하게 된 돼지는 사과 1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등수에 맞는 사과를 받아갑니다. 돼지의 친구들은 이 놀이를 기념하기 위해 웃놀이를 합니다. 말은 다섯 개의 사과를 가져갔기에 '모'를 의미하고, 소는 네 개의 사과를 가져갔기에 '웃'을 의미하는 등 웃놀이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지요. 웃놀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한복을 입은 동물들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동물친구들처럼 즐거운 웃놀이를 하며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얻어주세요.



김명자 글·김세은 그림 | 보림 | 24쪽 | 값 7,000원

어느 날 상하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겨울바람이 지요. 바람은 “연날리러 가자. 연날리면 안 추워”라며 상하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덕분에 상하는 아주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새해맞이 풍물패가 있는 곳에 가면서 추운 것도 잊은 채 연날리기에 빠져드는 상하. 결국에는 마을 아이들을 따라 “연아연아 올라라, 하늘높이 올라라, 구름 속에 올라라”라고 노래를 부르며 연날리기 시합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날리기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네요. 상하의 연은 유달리 뱅글뱅글 돌다가 떨어지거든요. 이때 겨울바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바람은 연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보라고 충고해 주지요. 그리고 상하의 구멍 뚫린 방패연을 신고 높이 날아갑니다. 상하는 이 연에다 소원을 실어보냅니다. 연날리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놀이지만 우리나라 연놀이만큼 박진감 있는 연놀이는 드물다고 합니다. 연 방향이 자유롭고 심지어는 끊어먹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연이 그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네발연, 허리둥이연, 치마연 등 다양한 한국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날에 텔레비전 앞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과 모여 연날리기 시합을 해보세요. 연날리는 재미에 추위도 물러갑니다. **웃**

김청연 기자